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불기 2560년 헤거 큰스님 초청 송년대법회 봉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연말을 맞아 금강선원 헤거 큰스님을 모시고 송년법회를 22일 본원 5층 대강당에서 봉행했다. 많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올 한해 우수 신행 직원들을 시상하고 부상으로 해외성지순례 여행권을 부여했다. 법회에 참석한 헤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의 방향제시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하며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상을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헤거스님은 “십바라밀(十波羅蜜)을 양식 삼아 오로지 최선을 다해 이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세상으로 회향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이루어진다면 영구불변하는 땅이 될 것이며, 그것을 위해 지금부터 마음의 양식을 쌓고 염원을 세워야 한다.”라고 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헌혈증 5,000장 기부

지난 12월 20일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환자를 위해 헌혈증 5,000장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헌혈증은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원과 광동학원, 동대부고 학생들의 헌혈증이다. 본원은 나눔의 의미가 담긴 헌혈증을 백혈병과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및 저소득층 환자들 치료에 사용할 예정이다.



2016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자원봉사자 평가대회 성료

사회사업실은 지난 14일 '2016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자원봉사자 평가대회'를 본원 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한 해 동안 병원 내 다양한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활동성과를 돌아보며 아쉬움과 격려를 나누고 교류하는 화합의 장이다. 매년 12월에 열리는 자원봉사자 평가대회는 우수 봉사자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본원 CS강사의 특강도 진행되었으며,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모습이 담긴 영상감상의 시간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오민구 병원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수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상록의료재단 화정병원과 진료협력기관 협약식 체결

진료협력센터는 지난 12월 12일 의료법인 상록의료재단 화정병원과 진료협력기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본원 진료협력센터장 이준규 외 병원 관계자와 상록의료재단 김남균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진료기관의 진료협약 체결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협력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이뤄졌다.



2016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주최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기술 세미나 참석

건진운영팀 특수건강검진파트 및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8일 3일간 진행된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기술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폐, 청력 검사와 관련된 정확한 검사 방법, 판정 방법, 기관 평가의 방법과 관련된 기준과 부적합 사례 등이 발표됐다. 진폐, 소음 검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처음으로 개최된 교육으로 특수건강검진 인력(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사) 등이 참석하여 그동안 많이 시행되었던 오류 및 평가 감점사례 등을 공유하여 질 향상 및 오류의 수정, 보완의 자리가 되었다.

스마트 Tip⁺

병원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꼭 받아야 하나요? 받는다면 최초 방문 시에만 받으면 되나요?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 근거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최초 방문 시에만 받으면 되지만, 이후 이용 목적이 추가되거나 제3자 제공 등 처리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16년 연말정산 준비, 시작해요!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 항목 놓치지 마세요!!

하나. 취업 후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이혼·재혼했거나 호적에 등재돼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도 포함된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양가족에 포함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 기부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놔야 한다. 영수증을 신청하고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출 기간을 놓치기 쉽다. 대학원·평생교육원·직업훈련비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해 놔야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잃어버리기 쉬운 안경구입비 영수증 등도 한곳에 잘 보관해놔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휴대폰 번호가 바뀐 후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새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누락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셋. 이직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중도 퇴사자도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놓치는 사례로 꼽힌다. 이직 한 경우 12월 말 기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소득이 생기는 근무처가 여러 곳이면 가장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진행한다. 나머지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